

이번엔 시험문제 유출...깊어지는 교육불신

광주 사립고 동아리 문제 제공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돌입 상위권 내신 몰아주기 의혹도

광주가 또 고교 시험문제 유출 파문에 휩싸였다. 수학교사가 상위권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한 분노와 함께 박탈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일부 고교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몰아주기식 고교 내신' 행태가 사실상 드러나고 있어서다. 광주시 교육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흥역을 치렀던 광주시교육청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진데다, 사건 발생 직후 언론사가 취재

에 나선 이후에야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 는 등 전형적인 '뒷북 행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감사실 주관으로 광주시 북구의 한 사립고교에서 3학년 기말고사 수학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팀은 감사관실 2개팀과 교과 전문가인 교육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했다. 이 학교는 지난 5일 기말고사에서 수학 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와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26점)를 사전에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출제한 수학교사는 지난달 모의평가를 앞두고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 수학문제가 나온 유인물을 나눠줬고, 이 유인물에 포함된 5개 문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학동아리에서 풀었던 문제와 실제 시험문제의 유사성

을 살피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시험지와 답안지, 기숙사 학생 명단 등 관련 자료와 함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교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내 수학동아리가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학생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고, 공휴일인 주말에도 기숙사에서 동아리 활동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학교는 수년 전에도 동아리활동으로 위장해 공휴일 기숙사반 특별수업을 했다가 신고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공휴일 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재직 교사가 성적 상위권 학생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어떤 과목을 했는지, 수강료는 얼마를 냈는지 교섭행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성적 상위권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시교육청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10개월 만에 또 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지면서 시교육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는 일이 터져 안타깝고 죄스럽다. 시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학교 측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수학동아리에 유인물로 제공한 1000여개 문제 중 일부가 변형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특정 학생들을 배려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다만 9일 문제가 된 5개 문제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해 서구의 한 사립고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연루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제 손 깨끗하죠? 8일 광주시 북구 위생과 직원들이 중흥어린이집에서 세균오염도측정기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손바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동구 인구 10만명 회복 눈앞...매달 500여명씩 증가

산수·계림동 아파트 속속 입주

광주시 동구 인구가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4년 만에 인구 10만명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동구 인구는 4만 6426세대 총 9만 5743명으로 집계됐다. 동구는 지난 3월까지 인구 유출이 꾸준

히 이어졌으나, 산수동 대광로제비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4월 이후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3월 기준 9만 4098명이었던 동구 인구는 4월 555명, 5월 461명이 늘어나 9만 5000명을 돌파했다.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629명이 늘었다. 동구는 모아엘가·계림리수빌·대성메르힐·내남진아리채1차·LH행복주택 등이 들

어서는 용산지구(2680세대)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10만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2336세대), 소태동 무등산골드클래스(690세대), 계림7구역 두산위브 3차(908세대) 등이 입주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인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무선 물결레청소기 제품별 성능·사용시간 차이

인기를 끌고 있는 무선 물결레청소기도 제품에 따라 청소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물결레청소기 8개 업체 제품을 시험한 결과 청소 성능, 소음, 사용시간 등에서 제품 간에 차이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험 대상으로 선정한 제품은 최근 2년간 무선 물결레청소기를 구매해 사용해온 소비자 500명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별한 ▲경성오토비스 ▲신일산업 ▲오토싱 ▲사와디잡 ▲카스 ▲환경희생물과학 ▲휴스툼 ▲SK매직 등 8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오염도가 약한 커피믹스 등에 대한 청소 성능에서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거가 쉽지 않은 찌든 오염원을 없애는 성능에서는 차이가 벌어졌다. 계란 노른자를 12시간 이상 방치한 뒤 시험한 결과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휴스툼, SK매직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오염원을 잘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신일산업, 오토싱, 카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배터리 내구성은 전 제품이 양호했지만, 완전히 충전시킨 뒤 연속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제품별로 3.5배 차이가 났다. 환경희생물과학 제품의 사용시간이 1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고 경성오토비스와 카스 등 2개 제품이 28~2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해질 19:50 달뜨기 12:21 달지기 00:02

소낙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0/29	보성	구름 많음	18/27
목포	구름 많음	20/28	순천	구름 많음	20/29
여수	구름 많음	20/27	영광	구름 많음	20/29
나주	구름 많음	19/30	진도	구름 많음	20/28
완도	구름 많음	20/28	전주	구름 많음	20/29
구례	구름 많고 한때 비	19/30	군산	구름 많음	20/28
강진	구름 많음	19/28	남원	소나기	18/28
해남	구름 많음	19/28	축산도	구름 많음	20/25
장성	구름 많음	19/29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매우 높음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12:26	07:16
	---:--	19:42
여수	08:03	01:51
	20:26	14:30

◇주간 날씨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날씨	☁	☁	☀	☀	☀	☀	☀
기온	20/26	21/28	21/29	21/30	22/31	22/32	22/32

광주녹색당 동물 사육환경 개선 촉구 동물 위령제

초복(12일)을 맞아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동물 위령제가 열린다. 녹색당 광주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럽고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된다 인 간을 위해 도축되는 동물들을 위해 오는 1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물 위령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해마다 복날이 되면 무수히 많은 개와 닭이 희생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는 보양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며 "복날 소비되는 닭과 개의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자들은 공장

식으로 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닭과 오리들은 A4용지보다 작은 철창에 갇혀 제대로 걸어본 적 없고 날개 한번 펴보지도 못한 채 생후 한 달이 되면 죽음을 맞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제도화가 논의 되고 있는 육점 사업이 법적 승인을 받게 되면 끔찍한 사육환경이 승인되는 꼴"이라며 "잔혹한 방식으로 길러지고 도축되는 동물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번 위령제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특수학교 8곳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화재 발생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스프링클러가 전남 도내 특수학교의 경우 8곳 모두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 학교와 똑같은 소방설비 기준을 적용받아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전남지역 특수학교의 경우 8곳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는 1곳도 없다. 지난해 소방 시설법이 개정돼 병설 유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로 분류된 탓이다. 이로 인해 병설 유치원 129곳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나 특수학교는 여전히 화재 무방비 상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